

FAMILY OF EQUIVOCATIONS

The solo exhibition of Yang Haegue <Family of Equivocations> has been held at the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trasbourg and at its branch Aubette 1982 in France. Running until 15 September this exhibition is the first large museum exhibition of Yang Haegue, she critically and multilaterally approaches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and reveals her distinctive character of reinterpreting tradition. Yang introduces sculptures for performance at Aubette 1982, and various planes and installations as well as old pieces that have never been presented so far at the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trasbourg. The sculptures arranged at Aubette 1982 reflect the theme of dance, movement and rhythm inspired by Avant-garde art. 'Dress Vehicle - Yin Yang (2012)' and 'Dress Vehicle - Zig Zag (2012)' installed at the banquet hall are the works that the faces of steel structure are filled with blinds and knitting, and they present her unique interpretation referring to the formal vocabulary of Avant-garde. At Ciné-Dancing, the series of 'Sonicwears (2013)' is exhibited where visitors activate the function by wearing the pieces. Here the visitors can freely wear and experience clothing and jewelry such as poncho, bracelets, and scarves made with woven bells, and the sound produced from movement fills the space. At the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trasbourg, Yang Haeque's unique large blind work 'Blind Curtain - Flesh behind Tricolore (2013)' is installed at the entrance. Made by the combination of colorful aluminium blinds, it has the aspect of monument with the total height of 7m and gives different views according to various heights and angles. Furthermore, the wallpaper work 'Eclectic Totemic (2013)' which is the collaboration with the designer group OK-RM(Oliver Knight and Rory McGrath, London) is displayed on the wall of lobby, and photographs and collage works that show the artist's creativity and delicacy are also included in the exhibition.

양혜규의 개인전 〈동음이의어들의 가계〉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근현대 미술관과 그 분관 격인 복합전시공간 오베트 1928에서 개최됐다. 오는 9월 15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양혜규의 첫 대규모 미술관 전시로, 문화, 사회, 정치를 비평적이고도 다각도로 접근하며 전통을 재해석하는 작가 특유의 성격을 드러낸다. 작가는 오베트 1982에 퍼포먼스적인 성격의 조각을, 스트라스부르 근현대 미술관 내에는 지금까지 소개된 적 없는 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평면 및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오베트 1928의 조각작품들에는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무용, 움직임, 리듬의 주제가 반영됐다. 연회실에 설치된 '의상 동차動車'의 시리즈 '의상 동차動車 - 음양陰陽 (2012)'과 '의상 동차動車 - 지그재그 (2012)'는 블라인드와 뜨개질로 철골 구조의 면이 채워진 작품으로 아방가르드의 형식적 어휘를 참조한 작가 특유의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영화관 무도장에는 관람객이 조각을 직접 입어봄으로써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소리 나는 의류 (2013)' 연작이 전시됐는데, 관람객은 방울이 엮여 제작된 판초, 팔찌, 스카프 등의 옷과 장신구를 자유롭게 입고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가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운다. 양혜규 고유의 대규모 블라인드 작품 '블라인드 커튼 - 삼색기 뒤쪽에 살색 (2013)'은 스트라스부르 근현대 미술관 입구에 설치됐다. 이 작품은 다채로운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조합된 것으로 총 7m 높이에 이르는 기념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다양한 높이와 각도에 따라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그 밖에 로비 벽에는 디자이너 그룹 OK-RM(올리버 나이트와 로리 맥그라스, 런던)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벽지 작업 '이모저모 토템 (2013)'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진, 콜라주 작품 등 작가의 독창성과 섬세함을 드러내는 여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Hardware Store Collages>, 2012-2013





www.musees.strasbourg.eu, www.kukjegallery.com



